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5. 31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 럽

○ 영국-인도, 테러 위협 대비를 위해 양국 협력 강화

- 5.23 외신은 영국과 인도가 정례 회의에서 고조되는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△테러자금 조달 차단 △항공해상 보안조치 강화 △정보공유 개선 등을 중점 논의했다고 보도
- ※ 또한, 테러범들이 신기술을 악용하며 진화하는 만큼, 대테러전략 혁신 필요 부언

○ 英, 런던에서 테러 모의 혐의로 10대 청소년 체포

- 5.26 언론은 영국에서 10대 소년이 테러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, 극단주의에 빠진 청소년들이 테러에 연루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보도
- ※ 영국 경찰은 지난해 테러 혐의로 체포된 사람 중 약 20%가 18세 미만이라고 부언

○ 호주 야권, 반유대주의 갈등 관련 시위 유학생 추방 주장

- 5.28 언론은 호주의 주요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, 同 시위와 관련하여 야당 주요 인사들이 유대주의 확산이나 테러 지원에 연루된 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
- ※ 여당 부총리 「리처드 말스」 도 “최근 반유대주의 수준이 가장 심하다”며 우려 표명

미 주

○ 나미비아, 美 ‘테러리스트’ 목록에서 쿠바 제외 촉구

- 5.23 외신은 쿠바가 테러지원국(SST) 목록에 계속 등재되어 국제 원조와 무역에서 배제되는 상황으로 계속 고통받고 있다며 나미비아 정부가 美 정부에 쿠바를 SST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
- ※ 최근 美 국무부는 쿠바를 대테러 비협력국 명단에서는 삭제하였으나 국제 테러 행위에 반복적으로 지원을 제공한 국가 목록인 테러지원국 명단은 유지

중 동

○ 하마스, 獨 이스라엘 대사관과 미군기지 공격 모의 정황 확인

- 5.25 언론은 하마스가 해외의 거주 중인 유대인 및 이스라엘 사이트를 공격할 목표로 조직원을 독일에 잠입시켜 베를린 주제 이스라엘 대사관과 독일 주둔 미군기지 공격 계획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

※ 용의자는 지난 12월 베를린에서 하마스 조직원들의 무기를 숨길 장소를 수색하던 중 보안당국에 체포당했으며, 현재 유사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 추가 조사 중

○ 예멘 叛軍, 인도적 차원으로 수감자 113명 석방

- 5.27 언론은 예멘 후티叛軍*이 억류하고 있던 수감자 113명을 석방했으며, 석방자들은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힌 예멘 정부軍이지만 대부분 환자·부상자·노인 등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한 것이라 보도

* 同 단체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는 해상 무역로인 홍해와 바브엘만 데브 해협에서 민간 선박 등에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고 부언

아 · 태평양

○ 파키스탄, 최근 급증하는 테러에 맞서 대응 강화

- 5.23 외신은 파키스탄 軍이 최근 아프가니스탄에 기반을 두고, 국경을 침투해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테러범들을 상대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여 한달간 약 30여명을 사살했다고 보도

※ ISIS-K 뿐 아니라, 알카에다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조직 재건에 주력중이라고 부언

○ 나이지리아 무장단체, 중부지역 마을 난입해 10여명 살해

- 5.27 언론은 ‘보코하람’으로 의심되는 나이지리아 무장단체가 중부 니제르州 외딴 마을에 침입해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10여명을 살해하고 여성과 어린이 포함 160명을 납치했다고 보도

※ 니제르州에서는 무장단체의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, 이들 단체가 이슬람 지하디스트 세력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부언

○ 러시아, 탈레반 테러조직 명단에서 제외 검토

- 5.28 러시아 외무부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을 기존 테러조직 명단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푸틴 대통령에게 건의한 반면, 탈레반 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

파키스탄, 가스·정유시설 및 검문소 겨냥 테러

- '23.5.23 파키스탄 카이버파ختunkwa州에서 파키스탄 탈레반(TTP) 조직원 50여명이 가스·정유 시설*을 공격, 군인 4명·경비원 2명 등 6명 사망
 - * 1999년부터 파키스탄에 진출한 헝가리 기업 MOL그룹의 시설로 파키스탄 자회사가 운영 중
 - 사건 다음날, 카이버파ختunkwa州 시장 內 검문소에서 차량 자살폭탄 테러도 발생, 군인 2명·경찰 1명·민간인 1명 등 총 4명 사망하고 5명이 부상
 - 이와 관련 파키스탄 정부는 “전국에서 테러 위협을 근절하겠다”며 전면적인 군·경 합동 ‘이슬람 叛軍 소탕’작전을 실시
 - 전문가들은 “'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간을 再 집권하면서 아프간이 극단주의 세력의 새로운 근거지가 되었고, 이들이 인접국인 파키스탄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면서 파키스탄의 테러가 증가하고 있다”고 지적
 - * 南아시아 테러리즘 포탈(SATP)에 따르면 파키스탄 內 테러관련 사망자는 '21년 664명, '22년 971명, '23년 1,502명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
- '24.4.19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일본인 대상 자살폭탄테러
- ⇒ 최근에도 파키스탄 內에서 학교, 중국인 및 일본인 등을 대상으로 테러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국민* 피해 예방을 위한 관심 필요
- * 파키스탄 內 재외국민 현황 : 829명('23년 기준, 재외동포청)

< 파키스탄 탈레반(TTP) >

- (목표/이념) 파키스탄 정부 타도 및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 / 이슬람 극단주의
 - ※ 테러단체 지정 : UN('11.7), 미국('10.9), 캐나다('11.7) 등
- (연계세력) 탈레반, 알카에다, 라쉬카르 에 타이바(LeT) 등
- (핵심인물) 무프티 왈리 메수드
- (활동지역) 파키스탄 북서부 부족지역(FATA) 및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(쿠나르洲 등)
- (활동수법) 부족지역 內 게릴라戰 및 페샤와르 등 주요도시에서 폭탄테러 등 자행
- (주요동향)
 - '11.5 페샤와르 국경수비대에 자폭테러 자행, 80명, 사망 150명 부상
 - '18.7 페샤와르 총선 유세장에서 자폭테러 자행 22명 사망, 75명 부상